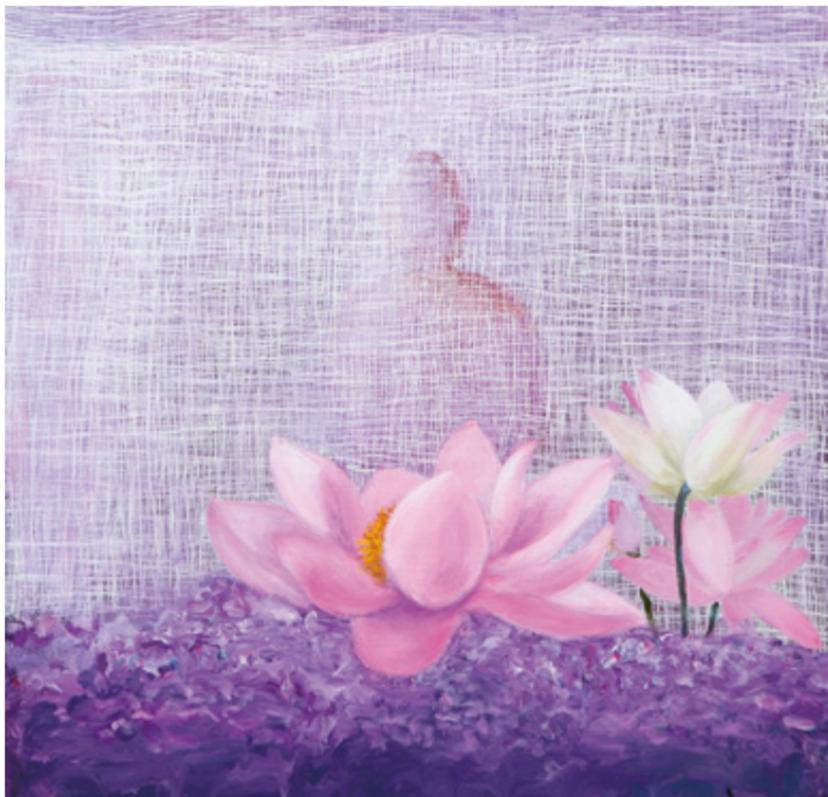


— 마음을, 세상을, 자연을

맑고 향기롭게

2019 . 5

맑음은 개인의 청정음,
향기로운은 그 청정의 사회적 메아리를 뜻합니다. - 法 頂





진흙 속에서도 티 한 점 없이
맑고 향기로운 꽃을 피워내는 연꽃은
시민모임 「맑고 향기롭게」의 정신을 상징합니다.



• 이가은 「不二」 | 홍익대학교 미술대학원 현대미술전공
불교의 불이(不二)사상을 화폭에 담아내는 화가

마음을 맑고 향기롭게

욕심을 줄이고 만족하며 삽시다 • 화내지 말고 웃으며 삽시다
• 나 혼자만 생각 말고 더불어 삽시다.

세상을 맑고 향기롭게

나누어 주며 삽시다 • 양보하며 삽시다 • 남을 칭찬하며 삽시다.

자연을 맑고 향기롭게

우리 것을 아끼고 사랑합시다 • 꽃 한 포기, 나무 한 그루 가꾸며 삽시다
• 덜 쓰고 덜 버립시다.

2019 / 5

다시 읽는 산방한담	04	일일일야 만사만생(一日夜 萬死萬生)
산다는 것 그림다는 것	11	관음상을 만든 뜻은
길상사 시간여행	16	성북동 길상사 터의 역사 ②
나눔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어요	23	나눔은 가까이, 사랑은 멀리멀리
아름다운 마무리	26	5월 결연 대상자 - 한진호
나의 아름다운 벚꽃 동산	28	가난한 곡예사의 봉헌
인권 야단법석	30	누군가 당신을 부르는 목소리
옛날 사람처럼 먹어라	32	나는 도시락 예찬론자입니다.
따뜻한 이야기	36	어린이들이 가진 보물
맑고 향기롭게 활동소식	38	
길상사 소식	49	

(사)시민모임 맑고 향기롭게는

우리들 마음과 세상 그리고 자연을 맑고 향기롭게 가꾸며 살자는 순수시민단체로 본 소식지를 발행합니다.

2019년 5월 1일 발행 / 통권 291호 / 신고번호 성북라00004호 / 1999년 6월 23일 등록

발행인 및 편집인 이형준 / 편집장 홍정근 / 편집위원 주소영

발행처 맑고 향기롭게 모임 : 서울시 성북구 선잠로 5길 68(성북동 323번지) 길상사 내

전화 (02)741-4696 전송 741-4698

인쇄인 · 인쇄처 디자인나경 유경은

대구모임 : (053)753-8883 / 경남모임 : (055)266-0710 / 광주모임 : (062)236-3129

<http://www.clean94.or.kr> / E-mail : clean94@hanmail.net

길상사는 맑고 향기롭게 모임을 후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법정스님에 의해 창건된 사찰입니다.

전화 (02)3672-5945 전송 3672-5947 / <http://www.kilsangsa.or.kr> / E-mail : kilsangsa@hanmail.net

일일일야 만사만생(一日日夜 萬死萬生)

- 하루 낮 하루 밤에 만 번 죽고 만 번 산다

글·법 정(法 頂)

요즘 피꼬리 소리 들습니까? 피꼬리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헛차가 나올 무렵이면 피꼬리가 돌아옵니다. 피꼬리 소리를 들으면서 헛차를 마시면 그 차 맛이 훨씬 향기롭습니다.

또 진달래 필 무렵이면 반드시 소쩍새가 찾아옵니다. 험벗고 황량해진 이 땅을 그래도 저버리지 않고 철따라 새들이 돌아온다는 것은 여간 고마운 일이 아닙니다. 해마다 잊지 않고 찾아오는 그 의미와 정상을 생각하면 눈물겹기까지 합니다. 사람은 곧잘 등지고 배신을 하는데 짐승들은 옛정을 잊지 않고 의리를 지킵니다. 자연현상 속에서 우리는 배울 바가 많습니다.

이 시대 같은 불자로서 부처님오신

날을 함께 축하하게 된 이 인연에 먼저 감사드립니다. 부처님의 존재가 우리들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곰곰이 생각할수록 그 은혜에 고마움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불교는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우리들 자신이 부처에 이르는 길입니다. 타 종교와 불교의 다른 점은 여기에 있습니다. 타 종교는 교조를 신앙의 대상으로 섬기고 따를 뿐이지 스스로 그 경지에 이를 수 있다는 가르침이 없습니다. 불교는 부처님의 가르침인 동시에 우리들 자신이 부처를 이루는, 부처의 경지에 오르는 길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은 한평생 많은 위

대한 가르침을 펼쳤습니다. 그 가운데 핵심은 '자비'입니다. 곧 사랑입니다. 부처님은 자비를 이야기했고 그것을 실천했습니다. 자비의 실천이 있었기에 불교가 종교가 될 수 있습니다. 자신의 깨달음만을 주제로 삼았다면 불교는 종교로서 존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모든 종교는 사랑을 말합니다. 사랑을 말하지 않는 종교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러나 대개의 종교는 인간 중심의 사랑에 그칩니다. 이 세상은 인간만 모여 사는 곳이 아니라 만물이 더불어 살아가고 있는 장입니다. 수많은 생명체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조화와 균형의 관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식물과 동물이 없다면 인간도 생존할 수 없습니다. 식물과 동물이 곁에 있기 때문에 서로 의지하면서 우주적인 조화를 통해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이치입니다.

요즘 조류독감 때문에 날짐승들이 큰 수난을 겪고 있습니다. 아직 병에 걸리지 않은 수많은 닭과 오리까지 산 채로 매장하고 있습니다. 인간 중심의 잔인하고 극악무도한 처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만 무려 6천만 마리가 생매장되었습니다. 오늘 아침 뉴스를 보니까 서울시장이 시내에 있는 모든 가금류, 집에서 기르는 날짐승들을 모조리 살처분, 생매장시키겠다고 합니다. 이런 일을 아무렇지도 않게 기계적으로 자행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모든 것이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이런 일은 반드시 업이 됩니다. 업이 되어 인간 자신의 삶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칩니다.

자비란 무엇입니까? 자비는 사람에게 대한 사랑뿐 아니라 모든 살아 있는 생명체에게 이르는 사랑입니다. 불교 초기 경전인 <숫타니파타>에는 여러 경전이 수록되어 있는데,

그중 <자비경>에 다음의 내용이 있습니다.

사물에 통달한 사람이
평화로운 경지에 이르러
해야 할 일은 다음과 같다.
유능하고 정직하고
말씨는 상냥하고 부드러우며
잘난 체하지 말아야 한다.
만족할 줄 알고
많은 것을 구하지 않고
잡일을 줄이고
생활을 간소하게 한다.
또 모든 감각이 안정되고 지혜로워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으며
남의 집에 가서도
욕심을 내지 않는다.

이런 경전 구절을 들을 때마다 자신의 삶을 이 가르침에 비춰볼 수 있어야 합니다. 법문을 듣는 이유는 자신의 삶을 개선하기 위함입니다.

과연 나 자신은 모든 사물에 만족할 줄 아는가? 많은 것을 구하진 않

는가? 무엇을 잔뜩 가지고 있으면서도 더 구하진 않는가? 온갖 복잡한 일에 얽혀 허덕이면서 헤어날 줄 모르진 않는가? 과연 생활을 간소하게 하고 있는가? 이것들을 스스로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모든 감각이 안정되고 지혜로워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가? 남의 집에 가서도 욕심을 내지 않는가? 자기 분수를 알아서 남의 것에 한눈팔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경전에서는 계속해서 말합니다.

마치 어머니가 목숨을 걸고 외아들을 보호하듯이
모든 살아 있는 것에 대해서 한량 없는 자비심을 발하라.

모든 살아 있는 것에 대해서 자비심을 가지라는 말입니다. 마치 어머니가 외아들을 보호하듯이 그렇게 무한한 자비심을 발하라는 것입니다.

또한 온 세상에 대해서
무한한 자비를 행하라.
위로, 아래로, 옆으로
그 어떤 장에도 원한도
적의도 없는 자비를 행하라
서 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앉아 있을 때나
누워서 잠들지 않는 한
이 자비심을 굳게 가지라
이 세상에서는
이런 상태를 신성한 경지라 한다.

여기 ‘자비심을 발하라.’, ‘자비를 행하라.’, ‘자비심을 굳게 가지라.’ 등의 비슷한 표현들이 나옵니다. 이 표현들에 다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 부처는 무엇인가? 자비심입니다. 자비심이 곧 부처입니다. 오늘날처럼 살벌하고 무자비한 세상을, 사람이 살아갈 만한 곳으로 바꾸려면 무엇보다도 자비심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불교 국가인 스리랑카에서는 결혼

식 전날 스님들을 집으로 초청해 축복의 의식을 올리는데, 이때 신랑 신부가 스님들과 함께 이 <자비경>을 암송합니다. 새롭게 인생의 길에 들어서면 두 사람이 의지할 교훈으로서 자비의 가르침을 주는 것입니다. 자비를 발하는 것이 이처럼 삶속에서 실천되어야 합니다.

자비의 ‘자’는 함께 기뻐한다는 뜻이고, ‘비’는 함께 신음한다는 뜻입니다. 남이 잘되는 것을 더불어 기뻐하고, 남의 고통을 그냥 바라보지 않고 더불어 신음합니다. 자비에는 함께 기뻐함과 함께 슬퍼함의 양면성이 있습니다.

저는 20여 년 전 인도와 스리랑카, 태국, 인도네시아, 대만 등지를 순례한 적이 있습니다. 이 나라를 여행하는 내내 새삼 ‘종교의 본질은 무엇인가? 하는 의문이 떠나지 않았습

니다.
종교의 본질이란 무엇인가?
그러다가 대만에서 며칠 묵으며 그

곳 불자들을 만나면서 그들의 삶을 통해 종교의 본질이 ‘자비의 실천’이라는 것을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추상적이고 막연하던 종교의 본질이 다름 아닌 자비의 실천임을 또다시 깨친 것입니다.

그런데 자비의 실천은 혼자서는 불가능합니다. 만나는 대상을 통해서 자비가 실현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중생이 없으면 부처가 될 수 없습니다. 중생이 있기에 부처를 이루는 것입니다. 만나는 대상으로 인해 비로소 내 안에 잠들어 있는 자비의 움이 틈니다. 때문에 우리가 만나는 이웃은 나를 일깨워주는 선지식(바른 도리를 가르치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때그때 마주치는 타인을 통해서 나 자신이 활짝 열린다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타인을 만나서도 마음이 열리지 않는다면 그것은 평소에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수행이란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참선하

고 경전을 읽는 것은 바로 마음을 열기 위한 준비 과정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자기가 할 일, 자신의 도리를 망각하지 않고 실현할 수 있습니다. 부처란 깨어 있는 사람이란 뜻이기도 합니다. 24시간 늘 깨어있는 존재가 바로 부처입니다.

거듭 강조하지만 불교는 부처님의 가르침일 뿐 만 아니라 우리 자신이 부처에 이르는 길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한 생각이 일어나 부처가 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수많은 세월을 두고 순간순간 자비의 실천을 통해서, 다시 말해 부처의 행을 통해 부처를 이루는 것입니다.

수행은 승려들만 하는 일이 아닙니다. 누구나 다 해야 하는 것이 수행입니다. 일상의 삶 속에서 타인을 통해 내 마음을 쓰고 타인을 대하는 일 자체가 하나의 수행입니다. 수행은 닦는 행위입니다. 수행을 절에서나 하는 것으로, 또는 승려들만의 전

유물로 착각해선 안됩니다. 일상의 삶 자체가 수행이 되어야 합니다. 무엇이든 수행으로 받아들이면 기분 나쁜 일이나 불행한 일도 참을 수 있는 용기와 지혜가 생겨납니다. 그런 의식으로 깨어 있지 않으면 대상에 늘 한눈팔게 됩니다.

‘일일일야 만사만생(一日日夜 萬死 萬生), 하루 낮 하루 밤에 만 번 죽고 만 번 산다.’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하루에도 수없이 생사를 거듭합니다. 수행을 하지 않아 깨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하루하루의 삶 자체가 수행이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수행을 통해서, 자비의 행을 통해서 인간이 성숙해집니다. 수많은 세월을 지나며 순간순간 새로워지고, 타인과의 관계를 통해서 나 자신을 향상시킬 수 있어야 새롭게 눈이 열리고 또한 세상을 맞이할 수 있는 기량이 갖추어집니다.

해마다 부처님오신날이 되면 등 달

고, 음악회도 열고, 이렇게 모여서 이야기도 듣고 합니다. 이것을 단순한 행사로 여기지 마십시오. 저도 오늘 여기 나오면서 ‘내가 오늘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할 것인가?’ 하고 생각했습니다. 똑같은 되풀이, 그것은 지겹습니다. 언제나 새롭게 시작해야 합니다. 오늘은 어제의 연장이 아닙니다. 새날입니다. 내일 일을 누가 압니까? 그날그날을 새날로 맞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일상에 찌들지 않고 나 자신이 새롭게 움틀 수 있습니다. 해마다 맞는 부처님오신날이지만 오늘 맞는 부처님오신날은 달라야 합니다.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삶 자체가 수행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거듭거듭 성숙해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는 데 지혜와 용기가 생겨서 휩쓸리지 않고 깨어 있는 정신으로 헤쳐 나갈 수 있습니다.

잠들기 전에 자기 삶을 점검해 보

아야 합니다. 오늘 하루, 나는 어떤 이 결코 소홀해지지 않고 날마다 새 수행을 했는가? 오늘 하루, 타인에 로운 날을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게 무엇을 베풀었는가? 내 인생의 금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 성불하 고에 어떤 것을 축적했는가? 십시오. 이렇게 점검한다면 하루하루의 삶

- 2008년 5월 12일 부처님오신날

관음상을 만든 뜻은

글 • 최종태

불기 2563년 부처님오신날 기념 문화행사

이가온 不二展

- 눈길 손길 마음길 그곳에 부처 -

- 장소 : 길상사 설법전
- 일정 : 5월 4일(토) 오후 2시 ~ 5월 12일(일) 오후 9시

※ 설법전에서 불교강좌, 법회가 진행되는 시간에는
잠시 전시회 관람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가온 | 홍익대학교 미술대학원 현대미술 전공, 초대개인전 15회, 부스전 및 국내외 아트페어 8회, 수상전 도쿄국제공모전 우수상(동경미술관), 환경미술대전 우수상(단원미술관), 대한민국 미술대전 입선(국립 현대미술관)와 다수, 현재 한국미술협회원

길상사 마당에 관음상을 만들어 세웠더니 사람들의 반응이 가지각색 이긴 했으나 대체로 종교 간의 어떤 상징으로 해석하고자 하는 것 같다. 관음상을 만들고 싶다는 생각을 하기 시작한 것은 몇 십 년 된 일이었다. 그에 따른 온갖 문제를 하나하나 다 짚어가면서 빼놓은 것이 없다 할 만큼 폭넓게 배려하고 있었다. 세상 사람들이 모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종교 간 문제에 대해서는 물론이고 예술과 종교, 사회와 인생, 그 모든 문제에 대해 오랫동안 많은 생각을 했다.

나는 관음상에 대해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를 받아주

는 사람이 있어야 했고, 또 놓을 장소가 있어야 했다. 그러던 중에 후원자들이 생겨났다. 그 소식을 법정(法頂) 스님이 전해 듣고 길상사 마당에 세우자는 전갈이 왔다.

어느 날 흙을 붙이기 시작했다. 일은 한나절에 다 되었다. 길상사에 전 화했다. 주지 스님을 찾은 것인데 뜻 밖에도 법정 스님이 받으셨다. 흙 붙인 이야기를 했더니 당장이라도 보러 오겠다고 말씀하셨다. 나는 일은 됐지만 정리를 해야 하니 며칠 후에 보면 좋겠다고 했다. 안목이 높으신 분이어서 내가 생각한 모든 것을 직감으로 다 알아차리는 듯싶었다. 그리 하여 관음보살상은 일사천리로 진행

되었다.

나는 1958년 세례를 받았다. 그런데 그보다 두 해 전에 약 4개월간 불경 공부를 했다. 더 했을 터인데 겨울 방학이 되어 고향에 내려가느라 중단했다. 비원 앞에 있는 대각사라는 절에서 <반야심경>과 <금강경>을 끝내고 나니 겨울방학이 된 것이다. 나는 불경을 보면서 바로 이것이 예술론(藝術論)이라고 생각했다. 내가 미술대학을 다닐 때는 졸업 때 학점 없는 논문을 제출하게 되어 있었는데 나는 불경을 기초로 한 나의 예술론을 작성했다. 그 기본 생각에는 지금껏 변한 게 없다.

어쨌거나 예술과 종교와 인생, 그것은 나에게 한 덩어리다. 내게는 모든 경전이 다 예술론이다. 내 삶에서는 예술도 종교도 따로 떼놓을 수 없다. 땅에는 경계가 있지만 하늘에는 경계가 없다. 종교는 여럿이지만 진리

는 하나다. 나라와 나라 사이에는 국경이란 게 있다. 예술에 국경이 있다면 이상한 일이다. 그런데 종교 간에는 눈에 안 보이는 높은 울타리가 있다. 하늘 높은 곳에서 지구를 내려다 본다면 국경이든 울타리든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지구상에는 각종 생명체가 살고 있다. 생명의 근원은 하나다. 만공 스님이 오도송에서 '세계는 한 송이 꽃, 세계일화(世界一花)'라고 말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런데 민족 간에, 국가 간에, 종교 간에 그동안 얼마나 많은 전쟁을 했는가.

법정 스님은 관음석상을 세우면서 연기문을 만들어 다음과 같이 새겼다.

이 관세음보살상은 길상사의 뜻과 만든 이의 예술혼이 시절 인연을 만나 이 도량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이 모습을 보는 이마다 대자대비한 관세음보살의 원력으로 이 세상 온갖

고통과 재난에서 벗어날지어다. 나무 관세음보살.

내가 천주교 신자인 점을 생각하고 불교와 천주교의 만남을 뜻깊게 고려한 흔적이 엿보인다. 점안식 예절 중에 스님은 관음과 성모의 상징하는 바가 같다는 점을 대중 앞에서 특별히 강조하셨다. 장익 주교님이 신문 보도를 보시고 대단히 좋은 일이라고 전화를 주셨다. 법정 스님과 장주교는 오랜 친구 간이다. 나는 그날 인사말을 통해 이런 이야기를 했다. 내 가슴속에 오랜 세월 간혀 있던 한 형상이 크신 스님을 만나 세상에 나오게 되었다는 말과 함께, 스님이 아니었으면 나타날 수 없는 관세음보살이 마당에 설 수 있게 된 데 감사의 뜻을 표했다.

“이 일이 비록 작은 일이기는 하지만 결코 작은 일만은 아니라고 나는 확신합니다. 나의 모든 생각과 바람

을 이 형태에 다 부어 넣었습니다. 그 모든 이야기는 형태가 말할 것입니다. 지난날 우리 조상들의 위대한 불상 예술이 다시 새롭게 꽃피는 시절이 오길 바랍니다.” 모든 이의 가슴속에는 꽃이 피어나고 있었다. 모든 신문은 성모님을 닮은 관세음보살상이란 표현을 했다.

다 지는 일이지만 적잖이 긴장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제 모든 것이 다 풀렸다. 나의 관음상은 길상사 마당에 있는 듯 없는 듯 그냥 거기에서 있다. 만든 이가 천주교 신자라는 것이 별스러운 일이 아니라는 것, 그 점이 오히려 좋은 일이 된 것이다.

나는 평생 조각 일을 했는데 소녀상만 만들었다. 왜 그랬는지 나도 모른다. 예수상 빼놓고는 그림도 그리고 조각도 그렇고 소녀상밖에는 한 일이 없다. 내가 성모상을 만들게 되는 데에는 그런 사정이 있다. 나는 누

가 시킨다고 해서 할 사람이 아니다.

관음상은 여성상으로 표현되어 왔다. 상징하는 바가 마음에 꼭 든다. 세상의 어려움을 어루만져 감싸주는 영원의 어머니다. 내가 그토록 오랜 시간을 두고 만들고 싶어 한 것도 그런 연유다. 일본 법륜사에 있는 백제 관음에 심취한 것도 한 연유다. 어쨌든 나는 꼭 관음상을 만들어야 할 사람인 것이다. 그것이 이루어진 것이다. 얼마나 기분 좋은 일인가.

나는 길상사의 관음상을 내 조각 작품으로 보여주길 바란다. 한국 조각가 가운데 아마도 나처럼 불상 조각에서 영향을 크게 받은 이가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 나는 한국 미술 전반에 큰 관심을 두고 한국의 그 모든 만듦의 솜씨를 사랑한다.

젊은 날 그 어려웠던 시절에 내 길을 확실하게 깨우쳐 준 것이 금동

미륵반가상이다. 나는 그 길을 35년간 의심 없이 걸어왔다. 그 미륵상이 표징하는 사상이고 형태며, 그 모든 것이 내 지표가 된 것이다. 나는 그 길을 의심 없이 일로 매진했다. 대모험이었다. 성공이냐 실패냐 하는 것은 내 인생에서 큰 의미가 없다. 오직 그 목표에 접근하기 위해 길을 가는 것뿐이다. 미륵반가상이 가리키는 곳은 내 영원한 꿈의 땅이다. 나의 관음상은 그 길가에 꼭 있어야만 했던 하나의 사건일 뿐이다.

나는 숙제를 하나 푼 기분이다. 큰 짐을 하나 털어놓고 건너편 언덕을 바라보는 것 같은 심정이다. 내가 하고 싶었던 것은 나의 관음상이고 오늘의 관음상이며, 다시 말하자면 내 예술로서의 관음상이란 말이다. 앞서 말한 바 있는 '나의 모든 생각과 바람을 이 행태에 다 부어 넣었다. 그 모든 이야기는 행태가 말할 것이다.'라고 한 뜻이 바로 그것이다.

아마도 성모상과 관음상은 영원한 어머니로서 영원토록 이 세상에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닐까 싶다. 성모님과 관음보살에 대해 그 유사성을 이야기한 것은 오늘의 일이 아니다. 대자 대비이고 큰 사랑이며, 맑음과 깨끗함과 탈속함, 고귀하고 장엄하고 온화하고 부드러운, 그 태도가 수려·신

성하고 영원의 정경(情景)으로 상징됨에 동서는 한가지다. 이 영원한 사랑의 상징인 여성상을 만들고 싶었던 것이다.

내가 감당하기에 과분한 일이지만 끝없는 도전이요 갈망이다. 한 원이 이루어진 것은 사실이다.

최종태 • 1932년 대전에서 4남 1녀 가운데 장남으로 태어나 대전사범학교 2학년 때부터 이동훈 선생에게 그림지도를 받았다. 서울대학교 미술대학에 들어가 김종영 선생과 장욱진 선생을 만났다. 1958년 조소과를 졸업하고 1959년부터 국전에 출품하여 문교부장관상과 추천작가상을 받았다. 그림과 조각 못지않게 글쓰기를 좋아하여 '나의 미술 아름다움을 향한 사색' 등 7권의 수상집과 '교회조각' 등 8권의 화집을 냈다. 여러 잡지에 글을 쓰고 여러 성당에 성상을 만들어 앉혔으며, 호암미술관·대전시립미술관·가나아트 등 국내외에서 개인전을 열었다. 한국가톨릭미술상·서울시 문화상·대한민국예술원상을 받았고, 한국가톨릭미술가협회장을 지냈으며, 지금은 김종영미술관장·서울대 명예교수·대한민국예술원회원이자.

성북동 길상사 터의 역사 ②

글 • 홍정근

일제 강점기의 성북동

별장이 많고 마전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 위주였던 성북동은 서양식 건물과 새로운 조선식 집들이 하나 둘 들어서면서 점점 변하고 있었다. 1915년 조사된 성북동의 인구는 총 810명이었으나, 1930년 조사에 따르면 1,666명으로 2배 이상 늘었다.

그러나 성북동은 1930년대에도 농사를 지을 땅이 있거나, 산업 생산을 하는 곳이 아니었다. 1930년 '동아일보'에 실린 김동섭 작가의 「성북의 향기」라는 수필 형식의 글에는 혜화동에서 성북동으로 넘어가는 고개를 아리랑 고개라고 칭하고 있는데, 아리랑고개를 넘어가면서 보이는 성북동을 다음과 같이 말했다.

훨씬 아래 점, 점, 점 보이는 집들이 있는 곳이 성북동이라나

.....아늑한 초가지붕이 무한감(無限感)을 광문(廣間)시킨다.

1930년 성북동은 도시라기보다는 언덕 밑으로 집이 드문드문 보이고 초가지붕이 보이는 조용한 시골 같은 전원적인 모습을 알 수 있다. 성북동 별장은 봄에서 가을 사이, 날 좋은 날 잠시 이용하는 곳이었으므로, 성북동의 일반적인 주거환경이라고 볼 수는 없었다.

그럼에도 성북동은 경성부와 가까운 지역이었고, 자동차를 이용할 경우 40분 이내에 도착할 수 있는 곳이었다. 성북동 주변은 풍치지구로 정해질 정도로 경관이 아름다운 곳이

었다. 이러한 이유에서 인지 성북동은 일본 남녀의 소풍 장소로도 인기가 있었다. 어찌 되었든 1930년대를 거치면서 성북지역은 점차 큰 변화를 맞게 된다.

단편 소설을 잘 써 ‘한국의 모파상’으로 불린 상허 이태준과 한용운은 1933년 성북동에 집을 짓고 살았다. 이태준의 집 이름은 수연산방(壽硯山房)인데, 벼루가 다할 때까지 글을 쓰겠다는 의지를 보여준다. 법정 스님 또한 이태준의 글을 좋아하신 것 같다. 1957년 10월 7일 편지글에는 “앞으로도 좋은 책 많이 읽도록 하여라. 이태준 씨의 작품은 모두 훌륭한 것들이다.(지금은 북쪽으로 가 계시는 분이다.) 이름 있는 작가의 것을 골라서 읽어야 할 것이다.”라고 써져 있기도 하다. 이태준 역시 자신의 소설에서 성북동에 이사 온 소감에 대해 ‘이곳은 시골이다.’라고 남겼다.

일제 강점기 발간된 유명한 잡지 ‘삼천리(1929년 6월호~1942년 1월호 발행)’의 1933년 10월호에 따르면, “서울 부근은 모두 경치가 아름다운데 그 중에서도 성북리는 산수의 경치, 공기의 청정으로 유명한 지역이라고 한다. 이러한 이유로 최근에 경성부에 있던 사람들이 많이 이주하고 있는데, 특히 성북리는 한적한 근교이며 지형과 경치가 아름다워 예술을 벗 삼는 문인들이 많이 모여 살고 있다고 한다. 이들이 모여 살고 있기 때문에 성북리는 하나의 문인촌(文人村)인 것 같다.”고 했다.

그리고 ‘삼천리’ 1935년 6월호에는 길상사 터의 첫 번째 주인인 백인기(한말의 관리·자본가)의 별장이 소개되어 있다.

〈삼천리〉 제7권 제5호 (1935년 6월)
"부호(富豪)의 별장지대풍경(別莊地帶風景), 성북동 일대(城北洞一帶)"

「시가 십여만원(時價 十餘萬圓)의 백인기 저(白寅基邸) - 같은 성북동(城北洞)이라 하여도 산수(山水) 좋은 유한(幽閑)한 심곡(深谷)이 세기닥 있다. 그 중앙(中央)골목 막바지에 제일(第一) 좋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집이 백인기씨 별장(白寅基氏 別莊)이다. 후원 산림(後園 山林)만 십여만평(十餘萬坪)이라 전하며 들리는 말에 십사만원(十四萬圓)을 받으란 것을 아니 팔고 있다든가. 모은행(某銀行)에 칠만원(七萬圓)인가 저당이 되어 들어가 있는니 만치 넓고 깊고 큰 것으로 말할 수가 없다. 들어가는 산문(山門)은 화강석(花崗石)으로 하여 쌓았고 원내(園內)에는 수백년(數百年) 묵은 노송(老松)이 길을 막았고 천류(泉流)가 흐르고 석교(石橋)가 있고 그 속 에다가 좀 낡았지만 대규모의 여러 해의 조선식(朝鮮式) 커다란 집이 들어앉았다. 여름이 되면 바람소리 새소리와 물소리가 인간고(人間苦)를 잊게 하는 선경(仙境)이다。」

이어 학자이자 정치가였던 백상규,

한말 총리대신 한규설의 아들 한양호, 간송 미술관을 만든 간송 전형필, 대부업자 임종상, 지주였던 이종석, 약재상 이유선, 해동은행 김계수, 경성부 내 부자 김동규의 별장 등으로 총 14개의 크고 호화로운 별장이 있었다고 이 글에는 기록하고 있다.

한말의 관리이자 일제 강점기 기업가인 친일파 백인기는 성북동에 별장을 몇 채 가지고 있었는데, 그중 한 채가 현재 길상사의 터이다. 별장 내부는 깊은 숲으로 둘러싸인 산 아래 넓은 대지 사이로 계곡물이 흐르고, 맑은 물 위에는 돌다리가 놓였다. 해방 후 '청암장'이라는 요정으로 운영되다가 1955년 김영한이 당시로는 큰돈인 650만원에 인수하여 '대원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한 역사는 다음에 연재하고자 한다.

1936년 한국 문화가 이상(李箱)의

수필 '실화'에는 '동소문 밖 음벽정'이라는 성북동에 있던 요정이 언급되는데, 성북동의 요정 '음벽정(飲碧亭)'은 원래는 을사조약에 반대하여 자결한 민영환의 별장(성북정 13번지)이었다. 민영환 사후 1934년 7월 한택수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면서, 당시 손꼽히는 요정으로 발전한다.

'음벽정'은 조선일보 1935년 9월 23일자에 업소 사진까지 넣어 개업 광고를 내는데, '문명의 잡담(雜談·사람이 많아 복잡함)과 황진(黃塵·세상의 번잡한 일)에 시달리는 우리도 회인에게는 유일한 위안지'라고 선전하고 있다.

조선시대까지 도성 밖에만 있던 성북지역은 1936년 4월 경성부 안으로 포함된다. 일제 강점기 초창기만 해도 성북지역을 고양시로 배치되어 있었지만, 점차 지금의 서울시내로 들어오게 된다. 토지구획정리 공사를 마치고 대대적인 선전활동과 ‘

관'이 직접 개입하여 지역의 토지 매매를 활성화 시켰다. 그 효과 때문인지, 전통한옥도 아니고, 서양식의 주택도 아닌, 요상한 모양의 '조선집'들이 만들어지고 많은 사람이 살게 된다. 현재 남아있는 대부분의 한옥도 그 당시 지어진 것이다. 하지만, 성북동에 중산층만 살았던 것은 아니었다. 가난한 사람들 역시 성북동의 주민이었다. 현재 수연산방(이태준 생가) 앞, 지금은 도로가 된 옛 성북천 개천둑(쌍다리 주변) 자리에는 오래된 무허가 건축물이 늘어서 있다. 이렇게 국유지에 집이 들어서기 시작한 것은 경성의 급격한 인구 증가에서 비롯된 것이라 볼 수 있다.

성북지역에 보성전문학교, 경성고등 상업학교, 일본인 중학교들이 설립되었다. 이 때 세워진 학교들은 현재 성북구에 유난히 많은 대학교가 위치하게 된 기원이라고도 할 수 있다.

성북지역에 최초로 설립된 근대적

학교인 삼산학교(현재 성북초등학교)가 성북동에 있을 정도로, 다른 지역에 비해 교육에 관심이 많은 성북동 주민들은 '음벽정'이 생긴 이후 도로는 좁은데, 자동차의 왕래가 심해져 통행에 불편을 겪기도 하고, 학교, 예배당, 야학 등 많은 학생이 머물고 있었던 터라, 음벽정은 풍속이나 규범에 어지러웠다. 그리하여 마을주민들은 경찰서에 찾아가 진정을 하게 되는데, 1936년 9월 4일 자 조선일보 사회면에는 성북동 주민 대표들이 “음벽정이 생긴 후 취객·탕자(蕩者)들의 고성방가와 소란 때문에 못 살겠다”며 경찰서로 몰려가 항의한 사건이 보도되기도 했다.

현대의 성북동

1943년 동대문구에 속했던 성북동은 1949년 8월 13일 동대문구 일부 지역과 고양군 송인면 일부 지역을 합쳐 성북구가 새로 생기면서 성북구에 포함된다.

1950년 6월 25일 날이 채 밝지 않은 때, 북한의 공격으로 시작된 한국전쟁은 한반도 전역에 걸쳐 엄청난 상처와 피해를 입히는데, 그중의 하나로 역사적 아픔을 담은 성북구 '미아리'라는 지명을 널리 알리게 된다. 또한 한국전쟁으로 인하여 성북동에서 복숭아밭과 맑은 물이 흐르는 골짜기는 점점 사라지게 된다.

한국전쟁 3년 동안 많은 주택이 파괴되는데, 성북동은 다른 지역에 비해 피해가 적었다. 그로인해 성북동의 인구가 급격히 불어나기 시작했고, 토착민 외에 일자리를 찾아 서울로 올라온 이들이 성북동 곳곳에서 자리를 잡았다. 오늘날 북정마을 또한 당시 서울로 일을 찾아 들어왔던 사람들이 모여 정착하기 시작하면서 형성된 마을이고, 이 시기에 함경도 함청 사람들 역시 이 골짜기를 매우며 일명 판잣집 촌을 이루기 시작했다.

성북초등학교 부근을 경계로 성

북동 주택의 모습이 달라진다고 볼 수 있다. 1960년대 초중반까지는 여전히 정재계의 별장터였지만, 1960년 중반부터 점차 현대적인 형태로 잡아가기 시작한다. 과거 유명했던 배나무, 복숭아 등의 흔적은 점차 사라져가고, 정릉과 등을 맞대고 있던 골짜기 판자촌은 철거되고, 1967년 6월 성북동 산 25번지 일대의 숲속 풍치지구 약 10만평이 대규모 외국인 주택단지로 책정된다. 약 10만평에 이르는 넓은 땅은 교보생명 창업자인 신용호 소유였다고 한다. 그의 소유가 된 것은 간략히 말해 동작동 약 3만 6천 평의 신용호 소유의 땅을 국립묘지를 확장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수용하는 조건으로 미개발된 성북동 땅을 준 것이다. 성북천은 복개되고, 풍치지구로 개발이 불허되었던 숲의 나무들이 주택으로 대체되기 시작하고, 1968년 북악스카이웨이 공사가 진행될 무렵 김광섭 시인의 대표적 시 '성북동 비둘기'가 발표된다.

성북동 비둘기

- 김광섭

성북동 산에 번지(番地)가

새로 생기면서

본래 살던 성북동 비둘기만이

번지가 없어졌다.

새벽부터 돌 깨는 산울림에

가슴에 금이 갔다.

그래도 성북동 비둘기는

하느님의 광장(廣場) 같은

새파란 아침 하늘에

성북동 주민에게 축복(祝福)의

메시지나 전하듯

성북동 하늘을 한 바퀴 휘돈다.

성북동 메마른 골짜기에는

조용히 앉아 공알 하나 짝어 먹을

널찍한 마당은 커녕 가는 데마다

채석장(採石場) 포성(砲聲)이 메아리

쳐서

피난하듯 지붕에 올라 앉아

아침 구공탄(九孔炭)

나눔은 가까이, 사랑은 멀리멀리

글 • 곽영미

굴뚝 연기에서 향수를 느끼다가 산 1번지 채석장에 도루 가서 금방 떠난 돌 온기(溫氣)에 입을 닦는다.

예전에는 사람을 성자(聖者)처럼 보고 사람 가까이 사람과 같이 사랑하고 사람과 같이 평화(平和)를 즐기던 사랑과 평화의 새 비둘기는 이제 산도 잃고 사람도 잃고 사랑과 평화의 사상까지 날지 못하는 쫓기는 새가 되었다.



외곽공원에서 바라본 성북동 고급주택지

이렇듯 김광섭의 시 '성북동 비둘

기에서 표현된 것처럼 성북동의 이미지는 해방 후 성 밖 언덕과 성북천 개울가에 형성된 서민의 애환을 뒤로 하고, 급격한 산업화라는 고도 성장기를 거치게 된다. 1970년 12월 30일 성북동에서 세종로 간 거리를 10분 이내로 단축시켜주는 삼청터널이 개통되면서, 성북동 고급주택지의 인기는 한층 높아지고 땅값마저 급격하게 상승하게 된다.

북악산 자락 아래 남향을 향해 자리 잡은 대기업 총수들의 고급주택과 독일, 일본, 캐나다, 호주, 알제리, 오스트리아 등 30여개의 대사관저와 외교관저 그리고 전·현직 고급 공무원, 언론인, 대학교수, 문화예술인등 한국 사회의 주류들이 거주하며 서울의 양극화된 모습을 보여준다. (다음호 계속)

* 이 글은 성북문화원에서 발간한 '성북동 만남의 역사, 꿈의 공간'을 참조하였습니다.

“자, 이것으로 <오프라 윈프리 쇼>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방청객에는 제가 차 한 대씩 선물하겠습니다.”

오프라 윈프리의 말에 몇몇 방청객들은 환호성을 지르고, 몇몇은 무슨 말인지 몰라 어리둥절했습니다. 그들은 ‘설마, 아무리, 그래도, 진짜 자동차를 한 대씩 줄 리가 있겠어?’라고 생각했어요. 그때 한 남자가 바구니에 자동차 열쇠를 잔뜩 들고 와 방청객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방청객들은 그제야 서로 께안고 환호성을 질렀지요.

오프라 윈프리는 2년 뒤 또다시 방청객 모두에게 천 달러(약 백만 원)를 선물했습니다. 그녀는 행복해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이 돈은 모두 이웃들을 위해 쓰세요. 돈을 쓰면서 자신이 세상에 줄 수 있는 사랑과 행복을 느껴 보자고요.”

오프라 윈프리는 언제나 방청객들에게 고마웠습니다. 올보인 자신을 믿고 함께 울고 기뻐하며 토크쇼를 사랑해 준 사람들 덕분에 <오프라 윈프리 쇼>가 성공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거든요. 또한 가지 바람이 있다면 방청객들이 자신과 함께 나누는 삶을 살며 행복을 느끼는 것이죠.

오프라 윈프리는 작은 방송국의 여성 뉴스 진행자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현장 취재를 나가 인터뷰를

할 때면 감정에 휩쓸려 방송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불이 난 화재 현장에서는 화재 가족들과 함께 부둥켜 울고, 어린이를 학대하는 사람들을 인터뷰할 때면 분노를 감추지 못했지요. 결국 자신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바람에 아나운서 자리에서 물러나게 됐답니다.

그 후 오프라 윈프리는 토크쇼를 시작했어요. 토크쇼는 유명 연예인이거나 일반 사람들이 나와서 자신들의 얘기를 털어놓는 방송이에요. 윈프리가 토크쇼를 시작할 때만 해도 사람들은 토크쇼를 시시한 농담이나 웃긴 말을 하는 못난 방송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토크쇼의 인기가 높아지자 여기저기서 토크쇼를 만들기 시작했고 지금은 인기 있는 방송이 되었지요.

오프라 윈프리는 토크쇼에서 자신의 진솔한 모습을 보여 주었어요.

이웃집 아줌마처럼 누구에게나 먼저 친근하게 다가갔어요. 그래서 방송은 더욱 솔직해졌고, 방송을 본 사람들도 그들에게 공감하게 되었답니다.

얼마 후, 윈프리는 <오프라 윈프리 쇼>를 만들어 자신만의 색깔이 있는 방송을 시작했어요. 결국 <오프라 윈프리 쇼>는 매년 전국 최고의 시청률을 다투는 토크쇼로 커 나갔지요. 덕분에 그녀는 돈도 많이 벌게 되었습니다.

“평생을 통해 꼭 이루고 싶은 커다란 꿈을 만들어 보세요. 꿈은 클수록 좋아요. 꿈이 작으면 결실도 작답니다. 꿈이 없는 사람은 재미없게 살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큰 꿈을 가지고 그것을 이루고자 노력하면 인생이 재미있고 그 꿈도 함께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행복해집니다.”

오프라 윈프리는 자신은 운이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돈을 아주 많이 벌었기 때문이에요. 그녀는 자신의 돈을 가치 있는

곳에 쓰고 싶었어요.

윈프리는 누구보다 자신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는 가족과 친구들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가족과 친구들에게 정기적으로 선물을 나눠 주었지요. 그들은 윈프리에게 가장 가치 있는 존재이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윈프리의 사랑은 가족과 친구들에게 그치지 않고 멀리 멀리 퍼져나갔답니다. 회사 직원들의 생일에 선물을 직접 골라 보내거나 식당에서 함께 식사를 하는 등 직원들도 세심하게 챙겼어요. 또한 ‘더 나은 기회를 주자’라는 장학기구의 대표로 대도시 빈곤층 자녀들의 공부를 도와

주고 집짓기 운동도 했습니다. 아프리카 사람들을 위해 학교를 설립하기도 했지요.

2007년 미국의 유명 인사 가운데 오프라 윈프리가 가장 많은 자선기금을 낸 것으로 조사됐답니다.

“언제나 고마운 것들을 먼저 생각하세요. 나를 불행하게 하는 것보다 감사한 게 더 많습니다. 고맙고 감사한 것들을 공책에 써 보세요. 그럼 내 삶이 더 행복해진답니다.”

오프라 윈프리는 어려움 속에서 꿈을 이루고자 노력했고, 성공한 뒤에는 나누는 삶을 살며 행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오프라윈프리는 토크쇼의 여왕이라고 불리는 미국의 흑인 아나운서로 최연소 뉴스앵커이자 최초의 흑인 여성 아나운서이다. 어린 시절에는 많은 고난 끝에 방향을 하기도 했지만 끊임없는 노력과 열정으로 토크쇼의 여왕, 베스트셀러 작가, 회사의 경영자로 눈부신 성공을 이뤄냈으며 지금은 열심히 일하면서 가난한 이웃들에게 사랑을 나눠 주는 자선사업을 하고 있다.

5월 결연 대상자 - 한진호

한진호 님은 아들과 단둘이 살고 있습니다. 아내는 아들이 1살이 되던 해에 극심한 생활고를 견디지 못하고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한진호(53세) 님은 정신지체 3급, 아들 한준수(19세) 학생은 청각장애 4급을 가진 장애인입니다.

불안한 건강 상태

한진호 님은 22년 전 정신지체 3급을 진단받고 공황장애, 신경성 스트레스 편집증, 우울증, 급발성 간질 등 여섯 가지의 복합 정신장애를 앓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한 달에도 몇 번씩 정신을 잃었지만 신경 안정제 등 한 번에 12개가 넘는 약을 복용하면서 병세가 호전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작년 말부터 다시 악화되

어 혼절하는 증상이 생기면서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또한 왼쪽 골반에 인공 고관절을 하고 있으며 심혈관 문제로 스텐트 수술이 필요하지만 생계비도 부족한 상황에서 치료는 생각조차 할 수 없습니다.

'소이증' 만명 당 한명 꼴 희귀병

한진호 님에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사랑하는 아들, 한준수 학생이 있습니다. 준수 학생은 인구 만명당 한명 꼴로 나타나는 소이증이라는 희귀병을 갖고 태어났습니다. 소이증은 귓구멍이 막히고 귓바퀴가 일반인에 5분의 1밖에 되지 않아 잘 들을 수 없는 희귀병입니다.

소이증을 갖고 태어난 준수는 청각이 거의 들리지 않아서 한글을 배우

는 것도 다른 아이들에 비해 크게 뒤쳐져 있었고 남들과는 다른 외모 때문에 놀림도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몇 차례 수술을 통해 귓구멍을 뚫고 가슴의 연골 뼈를 이용하여 귓바퀴를 만드는 수술을 하였습니다. 다행히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고 미약하게 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수술 후 성적이 급격하게 오르면서 준수를 바라보는 주변 친구들의 시선도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 준수가 나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기면서 원활한 교우관계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노력 끝에 올해 사범대학교에 입학하여 선생님이 되는 꿈의 발판을 다졌습니다.

병마에 지친 가정에 한 줄기 희망을...

기초생활 수급권자인 한진호 님의 수입은 매월 장애 수당을 포함하여 받는 100만 원입니다. 지출의 가장

큰 부분은 의료비입니다. 정신병, 심혈관, 왼쪽 인공 고관절의 문제로 주 2~3회 병원 진료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증상에 따라 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는 검사항목이 발생하여 부담이 큼니다. 또한 심혈관 질환으로 스텐트 치료를 받아야 하지만 비용 부담으로 치료시기를 미루고 있습니다. 적지 않은 수급비지만 의료비로 사용하고 나면 생계비가 매우 부족합니다. 공과금도 3~4개월 씩 미납되었고 수천의 빚을 갖고 있다가 올해 1월 개인 파산을 신청하여 면책 받기도 했습니다.

생계비 부족으로 고통 받는 한진호 님의 가정에 생계비 월 40만 원(의식주에 필요한 생계비)씩 12개월간 총 480만 원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홀로 아들의 곁을 지키고 있는 아버지에게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 아름다운 마무리 후원계좌 : 신한은행 100-013-787953 사단법인 맑고 향기롭게
- 아름다운 마무리 모금 캠페인은 소식지 소개와 더불어 인터넷 다음 카카오톡 '같이기차'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가난한 곡예사의 봉헌

글 • 백형찬

한 가난한 난쟁이 곡예사가 있었다. 그가 할 수 있는 재주는 거꾸로 물구나무를 서서 발가락으로 접시를 돌리는 일이었다. 그는 길거리에서 재주를 부리며 먹고 살았다. 그런데 나이가 점차 들다 보니 몸도 아프고 거꾸로 물구나무서서 접시를 돌리는 일도 무척이나 힘들었다. 그만 두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떤 신부님이 길거리를 지나가다가 물구나무서서 발가락으로 접시를 힘겹게 돌리고 있는 난쟁이의 모습을 보았다. 발에서 접시가 자꾸 떨어졌다. 구경하는 사람들은 야유를 퍼부었고, 동전도 던지지 않았다. 이러한 모습을 지켜본 신부님은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다.

그래서 그 난쟁이 곡예사를 성당으로 데려왔다. 성당 심부름 일을 하며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신부님은 미사 시간에 “자신의 재능을 주님께 기쁜 마음으로 봉헌하면 주님께서 무척 기뻐하십니다.”라는 요지의 강론을 하였다. 곡예사는 이 말씀을 마음속에 깊이 간직했다. 그리고는 결심했다. “그렇다! 내가 가장 잘 할 수 있는 일은 물구나무서서 접시를 돌리는 일뿐이다. 이것으로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자.”

난쟁이 곡예사는 남들이 보지 않는 새벽마다 일찍 일어나 성모상 앞에서 물구나무서서 발가락으로 열심히 접시를 돌렸다. 그런데 하루는 성당 관리인이 새벽에 청소하러 왔다

가 곡예사가 성모상 앞에서 요상한 재주를 부리는 것을 보고는 놀랐다. 그래서 사제관으로 달려가 신부님에게 알려바쳤다. 신부님은 다음 날 새벽에 몰래 숨어서 지켜보았다. 곡예사가 성모상 앞으로 오더니 무릎을 꿇고는 “성모님, 제가 성모님께 드릴 수 있는 재주는 오직 이것뿐입니다. 기쁘게 받아주세요.”라고 기도드렸다. 그리고는 물구나무서서 발가락으로 접시를 돌리기 시작했다. 무척 열심히 돌렸다. 얼굴에서는 땀이 비오듯 했다. 이 모습을 지켜본 신부님은 화가 났다. “어떻게 성모님 앞에서 저런 장난질을 할까!”

신부님은 장난질하는 곡예사를 혼내주려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다. 그 순간, 기적이 일어났다. 놀랍게도 성모님께서 성모상에서 내려오셨다. 난쟁이 곡예사에게 다가가서서 푸른 옷자락으로 이마에 흐르는 땀을 닦아주셨다. 그리고는 말씀하셨다. “내가 나를 위해 물구나무서서 접시를 돌려주니 정말 기쁘구나.” 그 장면을 지켜보던 신부님은 무릎을 꿇고 성모님께 용서를 빌었다.

“우리의 모후, 우리의 어머니, 어머니께 저를 바치나이다.”

백형찬 • 서울 영등포에서 태어나 고려대에서 생명 과학자를 목표로 공부했다. 짧은 직장 생활을 뒤로하고 교육학박사학위를 받아 현재는 서울예술대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 수필가로 등단하여 ‘출가 4박 5일’로 작품상을 받았으며, 저서로는 <예술을 꿈꾸는 젊은이에게> <예술혼을 찾아서> <죽음을 읽다> 등이 있다.

누군가 당신을 부르는 목소리

글 • 양정훈

편집인을 맡고 있는 월간지의 교정 교열을 끝내고, 마지막으로 서문을 쓰기 위해 컴퓨터 앞에 앉아있었다. 그러다가 충남 태안의 화력발전소에서 들려온 비정규직 청년 노동자의 부고를 접했다. 참담한 사고였다. 단 한 줄을 쓰지 못하고 모니터만 바라보다가 컴퓨터를 끄고 말았다. 이들이 지나서야 겨우 다시 쓰려던 원고로 돌아올 수 있었다.

시인 김소연은 「눈물이라는 뼈」 시집의 서문에 “사람의 울음을 이해한 자는 그 울음에 순교한다.”고 적었다. 김소연이 말한 사람의 눈물과, 얼마 전 그이의 죽음과, 그로 대변되는 수많은 다른 이들의 얼굴이 잠시

겹쳤는데, 늦은 밤까지 아무래도 떨칠 수 없었다. 그저 운이 나빴다, 끔찍한 불행이다, 라고 말할 수 없다. 청년 노동자를 죽인 것은 무참한 노동구조였다.

그 뒤로 시간이 한참 흘렀다. 나는 어느 방송을 통해 인권 관련 시위 현장을 보고 있었는데 바로 거기에 사고로 유명을 달리했던 그 청년의 모친이 마이크를 잡고 서 있었다.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연설하는 것을 지켜보며, 예전에 어느 인권활동가가 내게 해줬던 말이 떠올라 한참 동안 머리를 떠나지 않는다.

"인권 활동을 하며 가장 슬플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그 활동가가

내게 물었더랬다. 경찰에 연행됐을 때라던가, 너무 비참한 폭력을 마주할 때가 아닐까, 나는 짐작했다. 그녀의 대답은 뜻밖이었다. "그건 바로 그 전까지 한 번도 거리에 서 본 적 없는 사람들이 치열한 인권 현장의 한복판에 세워지는 걸 지켜볼 때입니다."

하루하루의 일상을 그저 성실히 살아가던 이들이 거대하고 구조적인 혐오, 차별, 폭력을 고발하며 치열한 인권 현장의 한복판에 서기까지의 서사. 나는 그곳에 인권의 본질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동안 여러 차례 인권교육을 진행하며 아쉬웠던 것은 많은 학습자가 개인과 개인 간 도덕적 행동이나 배려, 혹은 사랑으로 인권을 해석하고 있다는 점이었다. 이러나 이 모든 것을 인권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인권을 왜곡할 위험이 있다. 명백히, 근·현대의 인권개념은 근본

적으로 국가권력 및 구조적 폭력과 시민 사이의 관계에 관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니 더 이상 갈 곳이 없어 거리에 선 사람들의 외침은 나와 당신을 대신해서 시대를 고발하는 소리이기도 하다. 그래서 더 크게 더 멀리 들려야 하는 소리일 수밖에 없다. 과거부터 한 번도 멈춘 적 없는 소리이고, 실은 '저들의 소리'가 아니라 '당신과 나'를 호명하는 소리다.

우리는 날마다 조금씩 더 좋은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가. 더 좋은 삶을 향해가고 있는가. 그 증표이자 대답이 바로 인권의 현재라고 나는 믿는다. 인권의 외침을 듣고, 말하고, 함께 되뇌기. 마침내 우리는 그것을 '연대'라고 부른다. 이 고약하고 쓸쓸한 여정에서 역설적이게도 다음 길을 열어주는 것은 언제나 바로 그 연대의 힘이다.

나는 도시락 예찬론자입니다

글 • 권오분

“엄마, 오늘로 도시락 싸기는 마지막이에요. 내일부터는 단축 수업이라 도시락 없어도 된대요.”

고3 딸아이가 청국장밥을 비벼 먹으며 지나가는 말투로 뜨거운 청국장을 보온병에 옮겨 담은 나에게 말했습니다. 등 뒤에서 무심하게 말하는 딸아이의 목소리가 더 들리지 않았을 때,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엄마, 내 말 들었어요?”

“응. 알았어.”

내 목소리의 떨림을 알았던 것일까요. 딸아이는 손가락을 든 채 다가와 나를 돌려세웠습니다.

“엄마 울어? 왜?”

눈물이 그렇그렁한 나를 보며 너

무 놀라더군요. 그때 나는 왜 그런 기분이 들었을까요.

복잡한 가정생활에 수시로 병원에 입원하시는 시어머님을 모시고 살던 터라 나는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기가 어려웠습니다. 남들처럼 과외를 시키지도 못했고 휴가를 함께 하는 일도 쉽지 않았지요. 도시락을 준비하는 일이 나에게는 아이들에 대한 유일한 사랑 방법이고 무언의 소통인 겁니다. 쪽지 하나 꼭 도시락에 같이 넣어야겠다고 버리고만 있었는데 끝이 나다니 손에 들고 있던 오색 풍선을 놓친 느낌이었고 이제 서로에게 이별하게 되었다는 기분도 들었습니다.

친정어머니·시어머니를 연이어 모시고 살았기 때문인지, 우리 애들은 햄버거나 피자를 좋아하는 여느 아이들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비지찌개나 청국장을 학교에서 먹을 도시락으로 들고 가는 유일한 아이들이었지요.

요즘이야 청국장이 건강식으로 주목을 받지만, 몇 해 전만 해도 싫어하는 사람이 더 많았습니다. 어느 날 아이가 말하기를, 처음에는 친구들이 청국장을 싫어하더니 한 번씩 먹어 보고서는 그 뒤로 너도나도 먹겠다고 성화여서 자기는 청국장 싸간 날은 한 숟갈도 먹지 못하게 되었다고 툭툭거리더군요.

그 말을 들은 뒤로 보온밥통 한 개를 더 준비해서 한 통은 찌개 종류를 쌀 때마다 가득 담아 보냈습니다. 5교시 수업에 들어온 어떤 선생님은 “청국장 먹은 놈이 누구냐?”하고 호통을 치면서 냄새가 심한 음식은 싸오지 말라고 했는데, 친구들의

성화에 싸갈 수밖에 없다고 행복한 불만을 토로했지요. 저는 한술 더 떠서 과일도 색깔을 맞추어서 골고루 챙겼습니다. 계절 과일들을 한꺼번에 사다가 냉장고에 넣어 두고 매일 색을 바꾸며 준비하는 일은 그림을 그릴 때 색을 선택하는 기분이었다. 답니다. 열량 소모가 많이 될 걸 생각해 튀김도 골고루 자주 만들어 주었지요.

“너 오늘은 뭘 싸왔니?”

4교시가 되면 친구들이 쪽지 글을 보냈다고 합니다. 아이는 그럴 때 가슴이 뛰었다고 하더군요. 그 기쁨의 시간을 위해 나는 매일 5인분의 도시락을 준비했습니다. 보파리장수처럼 도시락 가방을 들고 가는 빼빼한 딸아이의 모습이 안쓰러웠지만 아이는 늘 즐거워했습니다. 친구들과도 도시락을 펼치면서 고3 스트레스를 풀었다고 했고요. 이러한 이야기들이 나에게는 약간의 부담이 되

었지만, 새벽 기도를 하거나 몇천 배 절을 하는 것보다야 수월하다고 생각했고, 기도 대신, 기도처럼, 늘 도시락을 준비했습니다. 아이들을 위해 밥과 반찬을 만들면서 소소하게 담았던 기도와 소원이 이루어졌던 것일까요. 우리 아이들은 친구들과 싸우는 일 한번 없었고 공부도 잘했고 또 잘 자라주었습니다.

나는 도시락 예찬론자입니다. 간편하고, 쉽고, 재료가 복잡하지 않아 즐겁게 도시락을 준비할 수 있기에 늘 궁리를 할 수밖에 없지요. 도시락 예찬론자가 된 이유는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경제적이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입맛이 모두 각각인데 내 가족의 입맛은 나만이 알기 때문에 그 주권을 쥐고 있는 엄마라는 역할에 자부심을 품게 되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을 위해 공부를 대신할 수도 없고, 대신 놀아 줄 수도, 울어 줄 수

도 없지만 유일하게 그들이 원하는 음식을 만들어 줄 수 있는 엄마. 나를 가장 엄마답게 해주는 일이 음식을 만드는 일이니 내가 밥 짓고 반찬 만드는 일을 즐거워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돈만 있으면 어디에서나 쉽게 음식을 사 먹을 수 있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예전과는 사뭇 다르지요. 그렇다고 사 먹고 사는 것이 최상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쉽게 먹거리가 해결되면서 정신적·육체적으로 건강이 문제가 된 것은 이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되었습니다. 빠르고 맛있고 편리한 것만이 과연 최선일까요? '관계'나 '소통'이라는 단어가 흔해졌는데도 멀게만 느껴지는 세상입니다.

“사랑한다.”라는 백 번의 말보다 나눔이라는 한 번의 행위가 생명력이 있다고 봅니다. 그 나눔의 중

심 역할을 늘 도시락이 해 주었지요. 그래서 한 사람을 위한 도시락부터 백여 명을 위한 도시락까지, 나는 늘 도시락을 준비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무엇을 만들까? 무엇을 나눌까?'라는 생각으로 머리와 가슴이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그 채워진 것들이 오래도록 어디론가로 흐를 수 있기 위하여 나는 건강하고 싶습니다. 만드는 나의 건강과 먹을 사람의 건강을 기도합니다. 건강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음식도 먹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음식은 소통이고 사랑입니다. 한쪽만으로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음식은 살아 있는 모든 이들이 공유할 수 있는 공기와도 같은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삽니다. 죽을 때가

지 매일 먹어야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몸에 좋은 맑고 싱그러운 공기로 숨 쉬고 싶듯이, 입이 즐겁고 몸에 좋은 음식, 꼭 맛있는 음식이 아니어도 싫지 않은 음식을 마련할 수 있는 일은 참으로 아름답고 귀한 소명이라고까지 생각합니다.

김수환 추기경님은 “나는 밥이고 싶습니다.”라고 하셨지만, 나는 밥을 만들어 나누고 싶은 게 소망입니다. 때로는 마음과 달리 몸이 힘들 때도 있지만, '내가 살아 있는 동안에 언젠까지나 할 수 있을까?'라는 유한함을 생각하고 다시 힘을 냅니다. 마음에 좋은 말도 필요하지만 상대방의 몸에 좋은 음식을 만들어 나누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을 거라는 내 생각이 흔들리지 않기를 바라며, 나는 또 부역으로 갑니다.

권오분 · 동네에서 밥 퍼주는 아줌마로 소문난 권오분님은 과거 「맑고 향기롭게」 소식지에 오랫동안 글을 연재했으며, 자연을 사랑하고 환경을 생각하는 글들을 주로 써왔다. <제비꽃 편지> <꽃으로 여는 세상> <아름다운 우리 숲 찾아가기>(공저) 등이 있다.

어린이들이 가진 보물

1900년대 초 이탈리아 빈민가의 어린이들은 방치되고 있었습니다.

그저 먹고사는데 급급한 부모들이 일하는 데 정신이 없을 때 아무 것도 배우지 못한 아이들은 할 일 없이 마을을 다니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보다 못한 뜻있는 사람들이 힘을 모아 아이들을 한 건물에 모아서 관리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 역시 아직 어린 아이들을 어떻게 교육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한참을 고민하던 중에 의사이자 교육자인 한 여성이 모두에게 말했

습니다.

"밝은 빛이 들어오는 따뜻한 교실에 아이들의 몸에 꼭 맞는 책상과 걸상을 마련합시다. 그리고 아이들을 순수하게 지켜봐 주세요. 어느 순간 아이들이 자기 일에 몰입하면 교사들은 간섭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그녀의 말에 의아해했습니다.

줄 맞춰 서는 것도 못 하는 아이들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무서운 선생님이 아이들을 호되게 다루어야 할 것 같은데 그냥 내버려 두다니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아이들의 변한 모습에 지켜보던 사람들은 놀라고 말았습니다.



식사 시간에 줄을 서서 음식을 받고, 자기보다 작은 아이를 돕고, 어느 순간 글을 읽고 쓰게 된 아이들은 선생님에게 감사 인사를 말할 줄 아는 어린이들이 되었습니다.

모두가 기적이라고 감탄할 때 그 여성 교육자는 담담히 말했습니다.

"기적이 아니에요. 어린이들은 내면에 보물을 가지고 있고, 발견되기를 기다리고 있을 뿐이에요."

어린이는 어른들이 일을 하는 동안 말썽이나 부리는 존재라고 생각했던 때, 이들을 가만히 지켜봐 주고 기다려주자고 말했던 이 사람이 바로 세계적인 교육자 마리아 몬테 소리입니다.

어린이의 무한한 가능성을 칭송하는 반면, 21세기가 된 지금도 어린이를 다스리고 통제해야 하는 대상으로 여기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아무리 작고 약하고 어려도 어린이 역시 한 명의 인지력을 가진 존재이며 그 안에 어른보다 더 찬란한 보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보물이 찬란하게 빛날 수 있도록 슬기롭게 닦아주는 것이 바로 어른의 의무인 것입니다.



중앙모임 소식(02-741-4696)

부처님 오신 날 - '자비의 등'을 나누세요

불기 2563년 부처님 오신 날이 5월 12일로 다가왔습니다. 중생들의 구제를 위해 자비의 가르침을 퍼신 부처님의 뜻을 따라 시민모임 맑고 향기롭게에서는 '남을 위해 다는 연등 하나 - 자비의 등 달기' 운동을 펼칩니다.

'자비의 등 달기' 운동은 법정 스님이 불일암에 머무르실 때부터 주창하신 이웃과의 나눔 운동입니다. 나 자신이나 내 가족, 친지가 아닌 우리 곁의 어려운 형편의 이웃들을 위해 연등을 밝히려는 취지로 맑고 향기롭게 모임에서는 1995년에 처음 시작했던 운동이기도 합니다.

이 운동의 방식은 본모임이 결연을 맺고 있는 재가복지사업 대상자중 어려운 형편으로 연등을 밝히지 못하는 불교신도를 위하여 길상사 도량에 자비의 연등을 밝히는 것이며, 후원해주신 동참금 전액은 부처님 오신 날에 맞춰 반찬나눔 대상자에게 생필품을 전달하는데 사용됩니다.

'중생들을 모두 깨달음에 이루게 하겠노라'는 서원과 함께 속세로 오신 부처님처럼 '나의 마음과 내 가족의 행복은 물론이요,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을 위하여 연등 하나 환히 밝히는 운동에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 후원계좌 : 국민은행 817-01-0255-458 / 사단법인 맑고 향기롭게
- '남을 위해 다는 연등 하나'의 동참금은 최소 10,000원입니다.
- 계좌 입금을 해주실 때 자신의 이름 옆에 '자비라고 써주시거나 중앙사무국으로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19년 숲기행

맑고 향기로운 암자를 찾아서

2019년 숲기행은 2018년에 이어 '암자기행'을 테마로 지난해에 다녀보지 못한 암자를 둘러보며,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지혜를 배우고 본래의 나를 찾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기획하였습니다. 현재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1. 숲기행 일정 : 매월 4째 주 토요일

일자	장소	숲 특성
5/25	강원도 오대산 북대미륵암	월정사의 산내암자 중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암자 미륵암과 주변의 수많은 야생화
6/22	대구 팔공산 선본사	약사여래부처님 기도처 선본사와 깃바위 부처님 그리고 관봉 주변의 암자들
7월 휴가철과 더위로 휴식		
8/24	강원도 설악산인양암	신흥사의 3암자 순례와 울산바위 가는 길의 뛰어난 자연경관
9/28	경북 운달산 김룡사	백두대간의 뛰어난 자연경관을 가진 운달산과 김룡사의 산내 3암자 순례
10/26	충북 속리산 법주사	속리산의 법주사, 세조가 병을 얻고 3일간 머물면서 병을 고친 복천암, 중사자암 그리고 속리산의 자연환경
10/11	강원도 오대산 동대관음암	월정사의 5대암자 중 중대, 동대, 남대, 3암자와 부도전 그리고 선재길

※ 본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 10월 11일은 봉사자 숲기행으로 (사)맑고 향기롭게 봉사자만 참여 가능

2. 접수 안내

- (사)맑고 향기롭게 회원 및 길상사 신도 : 5월 13일, 6월 10일, 8월 12일, 9월 9일, 10월 14일)
- 매월 첫째 주 월요일부터 접수 가능.
(5월 6일, 6월 3일, 8월 5일, 9월 2일, 10월 7일)
- 일반인 : 매월 둘째 주 월요일부터 접수 가능

3. 참가비

- 회원 및 신도 : 30,000원 / 일반인 : 40,000원



- 입금처:
KEB하나은행 257-890001-69804
/ 예금주: 맏고 향기롭게
- 참가비 환불 원칙 및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4. 할인 안내

- 전년도 3만 원 이상 후원 회원에 한하여 할인 가능하며 신규 회원은 후원금 납부하여 3개월 후 참여 가능
- 길상사 신도는 신도증 소지자로 한함
- 가족 참석은 직계 가족 1인으로 한함

5. 탑승지

- 길상사 일주문: 오전 6시 10분 / 한성대역 5번출구: 오전 6시 20분 / 양재역 2번출구 오전 7시 (시간을 정확히 지켜주세요)

6. 접수방법

- 전화 및 방문 접수(02-741-4696)

2019년 맏고 향기롭게 강연회(일요특강)

(사)맏고 향기롭게와 길상사에서는 법정 스님 입적 9주기해를 맞아 법정 스님의 영상 강연&법문으로 일요특강을 진행합니다. 시대적으로 진정한 어른과 진정한 가르침이 사라져가고, 경쟁과 외로움이 존재하는 현시점에 스님의 귀한 가르침을 다시 한번 되새겨보는 시간으로 마련하였으니, 많은분들의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 일정 : 3월 ~ 11월, 4째 일요일
(4째 일요일외에는 일요 가족법회가 병행됩니다.)
- 시간 : 오전 11시(사시예불 후)
- 장소 : 설법전

강원도 산불 피해 이재민 구호성금 전달하였습니다.

(사)시민모임 맏고 향기롭게는 4월 12일(금, 오후 2시), 지난 4월 4일 강원도 고성군과 속초시를 비롯하여 강원도 일대에 발생한 산불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강원도 피해 지역 주민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 맏고 향기롭게 회원들의 마음을 모아 구호성금 1,000만 원을 BTN 붓다회에 전달하였습니다.

맏고 향기롭게 이사장 덕일 스님은 “삶의 터전을 잃고 상심에 잠겼을 이재민들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모든 회원들이 십시일반 작은 정성을 모아서 이재민들에게 큰 보탬이 됐으면 하는 의미로써 성금을 마련하게 되었음을 말하며, 비록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이재민들을 위해 잘 쓰여 지길 바란다는 말씀을 하였습니다.

(사)맏고 향기롭게는 지난해에는 라오스에서 발생한 수력발전소의 보조댐이 붕괴되며 많은 재난을 입은 라오스 이재민을 위해 구호성금 천만 원을 BTN에 전달했고, 폭염으로 힘겨운 여름을 보내는 국내 에너지 빈곤층 500여 가구에는 냉방매트와 김치를 전달하는 등 장애인과 독거노인 등을 대상으로 온정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2019년 '맏고 향기롭게-길상화 장학생' 장학증서 수여식 진행하였습니다.

(사)시민모임 맏고 향기롭게는 4월 12일(금, 오후 3시) 법정 스님께서 맏고 향기롭게 살아가기 운동을 발족하시면서 시작하였던 장학사업과 「맏고 향기롭게 근본도량」 길상사를 무주상보시한 길상화 보살의 숭고한 뜻을 이어 26년째 진행되고 있는 “맏고 향기롭게-길상화 장학생” 장학증서 수여식을 「맏고 향기롭게 근본도량」 길상사 설법전에서 진행하였습니다.

“맏고 향기롭게 장학사업”은 1994년 3월 26일 법정 스님께서 맏고 향기롭게 살아가기 운동을 발족하면서 시작되었으며, 올해로 26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2000년부터故길상화 보살님(1999년 작고)이 옛대원각을 아무 댓가도 없이 무주상보시한 깊고 숭고한 뜻을 기리기 위해 기존 맏고 향기롭게 장학사업에서 “맏고 향기롭게-길상화 장학사업”으로 명칭을 변경 하였습니다.

본회 장학사업은 전국 일반고, 특성학교, 과학고, 종립고 고등학교 중에서 현직 교사, 사회복지사, 본회 회원, 맏고 향기롭게 지역모임 사무국의 추천을 받아, 학생의 성품, 가정 형편, 외부 지원 유무, 학교 성적 등을 최종 검토하여 총 41명의 학생을 선정 하였고, 장학금은 1년간(분기별로 학교 장학금 계좌로 입금) 지원하게 됩니다.

본회 장학 사업은 1994년부터 2019년 까지 총 717명의 장학생들에게 총 10억 6천여 만



원의 장학금이 지급되었습니다.

올해 장학증서 수여식은 장학생을 일방적으로 불러 증서를 수여하고 사진을 찍는 형식적인 행사가 아닌, 장학생들과 함께 교감할 수 있는 멘토링 마술소를 통해 학생들의 진로에 대한 고민을 함께 생각하고 참여하는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멘토링 마술소를 마친 후에는, 덕일 이사장 스님이 장학생들이 미래를 이끌 인재로서 푸른 꿈을 안고 살아가기를 바라는 격려의 말씀과 더불어, 장학생 남녀 대표자에게 장학증서와 법정 스님의 저서 '오두막 편지'를 선물로 전달하였고, 참석한 임원진이 나누어서 장학증서와 선물을 전달하였습니다. 장학증서 수여식이 끝난 후에는 단체 사진을 촬영하고, 길상사를 방문한 장학생들은 길상사 경내를 둘러보았습니다.

아울러 (사)시민모임 매품 향기롭게는 국가 정책으로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실시될 경우를 준비하여, 계속적으로 대학생 장학사업과 지방 도시와 농어촌 지역의 복지사각에 있는 학생들을 선발하여 장학금이 전해질 수 있도록 그 수혜 범위를 넓혀 갈 계획입니다.

(참고 : 서울, 경기 지역이 아닌 타 지역에서 선정된 장학생은 매품 향기롭게 대구, 경남, 광주 모임에서 별도로 수여식이 진행됩니다.)

길상사 생태사찰 가꾸기 “관음상 백양초” 화단 가꾸기

매품 향기롭게 근본도량 길상사를 도심속 생태사찰로 가꾸기 위해 활동하고 있는 생태사찰 가꾸기 봉사팀에서 지난 4월 8일, 봄을 맞이하여 관음보살상 화단, 정랑 위 화단 그리고 자판기 옆 화단에 우리꽃을 새롭게 심었습니다. 관음보살상 옆 화단에는 관음보살님을 장엄하고 안정된 느낌을 줄 수 있는 꽃으로 '잔디 패랭이'를 심었고, 단조로움을 피하기 위해 백양초를 5포기 심었습니다. 조금은 어수선 했던 화단이 잔디의 패랭이와 백양초가 어우러져 단아한 화단으로 바뀌었습니다. 또한 정랑 위의 화단의 일부를 텃밭으로 일구는 작업을 진행하고, 고추와 상추 등의 채소를 심었습니다. 시범적으로 진행을 한 후 어린이들이 와서 꽃, 채소, 흙을 만져 볼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생태사찰 가꾸기에 함께 동참해주실 분들은 언제든지 중앙사무국(741-4696)으로 문의 바랍니다.

매품 향기로운 삶을 사는 일에 뜻을 함께해주세요

시민모임 「매품 향기롭게의 활동에 대한 의견이나 제안, 궁금한 점이 있으면 본 모임 홈페이지 회원제안 게시판을 이용해주세요. 그리고 회원님의 변경된 정보(주소,

전화번호 변경 등)나 직접 발간하신 저서, 글, 공유하고 싶은 이야기 등이 있으면 사무국으로 방문 또는 전화, 편지, 전자 우편으로 알려주세요. 또한, 청정한 마음과 세상 그리고 자연을 더욱 매품 향기롭게 가꿀 수 있는 여러 활동이나 참신한 아이디어 공유해주실 분과의 만남을 기다립니다.

매품 향기롭게 정기 자원활동 봉사자 모집

* 매품 향기롭게 중앙모임에서는 우리 주변에 홀로 사는 어르신, 장애인, 결손가정 490여 가구에 매주 목요일과 금요일에 밑반찬 2가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명절(설날, 추석)과 정월대보름, 부처님오신날에는 생필품을 나누고 연말에는 김장김치를 대상자 가정에 15kg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2시 전에 끝나는 활동으로, 조금 힘든 일도 마다하지 않고 씩씩 해 주실 수 있는 봉사자의 손길을 절실히 기다립니다. 경기가 어렵고, 사회가 혼란할수록 조그마한 관심이 어려운 이웃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또한 3월부터 10월 까지 둘째 목요일에는 김치 나눔을 진행합니다. 중앙모임 봉사자를 비롯하여 KTX 나눔이회, SJ 파워 사랑봉사단의 많은 참여가 이어지고 있지만,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는 속담이 있듯이 함께 협력하면 훨씬 더 쉽고 맛

있게 김치를 전달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진인 노인요양원 자원활동

진인 노인요양원 자원활동은 오전에는 시설 청소, 주방 봉사를 하고, 오후에는 어르신과 어울려 민요, 국악 등 놀이 활동으로 진행됩니다. 매월 둘째 토요일 오전 8시 30분, 안국역 1번 출구 옆 골목에 모여 이동합니다.

* 서울노인복지센터 자원활동

서울 종로구 안국역 옆에 위치한 어르신 이용 시설 서울노인복지센터가 지난해 10월 15일부터 내부 공사로 인해 운영 중단 중입니다. 당분간 봉사활동이 중지되오니 이 점 속지하시길 바랍니다.

* 의류 리폼 자원활동 봉사자 모집

매품 향기롭게 의류리폼 자원활동은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작은 환경운동으로 안 입고, 못 입는 자투리 천을 이용하여 각종 소품이나 재활용품을 만들어 길상사 경내에 개점한 '매품 향기로운 가게'를 통해 판매하고, 수익금은 세상 사업 기금으로 적립하고 있습니다.

매주 화요일 길상사내 세계일화실에서 오후 12시부터 4시까지 의류리폼활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함께하실 봉사자를 찾



습니다.

간편한 CMS 후원

금융결제원의 중개를 통해 후원자님의 계좌에서 후원금을 인출하여 본 모임으로 입금되는 방식으로 은행을 직접 방문하는 번거로움이 없습니다. 사무국으로 직접 방문 혹은 본 모임 홈페이지에서 CMS후원 가입을 신청하면 됩니다.

자동이체 후원

후원자님이 원하시는 일자에 매월 일정 금액이 본 모임으로 입금되도록 하는 후원 방법으로 주민등록증, 통장, 도장을 지참하고 직접 은행을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후원금액 변동이나 중단 시 신청하신 은행에 직접 가야 합니다.

일시 후원

뜻 깊은 일이나 기념일을 어려운 이웃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경우, 정기적인 후원이 부담되는 경우, 본모임 회원은 아니지만, 활동에 공감하여 일시적으로 후원하고자 하는 경우, 다달이 소식을 받아보는 우편비로 소정의 금액을 후원하고자 하는 경우에 직접 본모임 후원 계좌로 입금하는 방법입니다.

※ 본모임 회원으로 등록되지 않은 분 중에 '연말정산 기부금 영수증' 발급이 필요

하신 분은 인적사항이 필요하므로 사무국으로 연락해주세요.

지로 후원 안내

가장 전통적인 방법으로 우편 배송되는 지로용지나 지로 번호를 통해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본 모임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 지로 번호 : 7618372

지로 번호로 은행에 가지 않고도 인터넷(www.giro.or.kr)에 접속하여 직접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5월 중앙모임 정기 활동 안내

<마음을 맑고 향기롭게>

- 소식지 우편 발송 자원활동 : 2일(목)/오전 10시~12시/세계일화실
- 일요특강(법정 스님 영상법문) : 26일(일)/오전 11시/길상사 설법전

<세상을 맑고 향기롭게>

- 맑고 향기로운 반찬 나눔 자원활동 : 매주 목, 금요일/오전 9시 30분~오후 2시
- 김치 나눔 자원활동 : 3월~11월 둘째 목요일(9일)/맑고 향기롭게 반찬 나눔 조리장(길상사 주차장 위)/양념이 묻어도 괜찮은 옷차림
- 서울노인복지센터 점심 무료급식 자원활동 : 만발식당 내부 공사 관계로 잠정 중단
- 진인 노인요양원 원내 청소 및 오후 놀이마당 정기 자원활동 : 둘째 토요일(11일)/오전 8시 30분/안국역 1번 출구 옆 골목

- 아름다운 만남(청소년과 독거어르신과의 만남) : 셋째, 넷째 토요일(18, 25일)

<정기 재정 후원>

- 시각장애인 호송 단체 '부름의 전화' 정기 후원
- '월곡 청소년 센터' 위탁운영 및 물품 후원
- 서울 지방 변호사협회 결연 청소년 지원
- 제주도 극빈 어르신 정기 물품 지원
- 자혜원(아동 양육시설) 후원
- 인도 다람살라 잠양(jamyang) 비구니스님 학교 후원

<자연을 맑고 향기롭게>

- 숲기행 5월 25일(토) 강원도 오대산 북대미리암
- 의류 재활용 봉사모임 : 매주 화요일/오후 12시/세계일화실
- 천연화장품 만들기 강좌 : 짝수 달 매주 수요일/오후 1시 30분/세계일화실

맑고 향기롭게 모바일 앱(APP) 안내



시민모임 맑고 향기롭게의 활동소식과 법정스님의 법문 영상, 잠언을 모바일로 쉽게 만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사용자를 위해 맑고 향기롭게 홈페이지 모바일 버전과 앱(APP)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모바일(스마트폰) → 구글 play스토어 → 맑고 향기롭게 검색 → 다운로드 → 설치

회원님과 길상사 신도님의 많은 활동과 홍보(추천하기)를 부탁드립니다.



대구모임 (053-753-8883)

- 대구모임 2층은 회원모임 공간과 사무실로 3층은 법정스님 자료와 도서, 대중강연을 진행할 수 있는 공간으로 꾸몄습니다. 3층공간은 대관으로 공간을 나누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홀로 어르신 말반찬 조리, 배달 및 말벗 나눔: 매주 수요일 / 음식조리활동(10시~13시), 배달 및 말벗활동(9시~2시)
- 연꽃 피는 집(치매노인 요양시설) 정기방문자 원봉사활동 : 매월 셋째 화요일/ 대구은행본점 앞 9시 출발 / 목욕, 식사도움, 빨래장리, 말벗
- 청도 운문사 봉사 : 매월 둘째 주 금요일 / 대구은행 본점 앞 9시 집결, 출발 / 공양 준비 및 공양재료 다듬기, 청소 등
- 햇살청소년자원사업 :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 청소년 물품 및 문화정서 지원 / 분기별 성폭력 가정폭력 피해기정과 함께 명상 및 문화기행
- 정기 자원 활동가 모집
(사)맑고 향기롭게 대구모임은 소외된 이웃에게 나눔을 실천함으로써 삶의 행복을 찾고자 하는

분들의 참여를 수시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 * 홀로어르신 반찬 나눔 조리봉사 :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
- * 맑고향기롭게(소식지)발송 : 매월 초
- * 사육 관리 및 청소 : 월중 수시
- * 홀로어르신 반찬 나눔 배달봉사: 매주 수요일 오후 7시

• 대구모임 3층 '시민서로배움터' 강좌 안내
- 태극권, 형익권, 팔괘장 정통계승 및 기공활법 활기공 전수자이며 현재 대체의학 테라피를 진행하고 있는 백무현 선생님을 모시고, 매주 월, 수, 목 오후 8시에 몸살림 기공체조 강좌를 진행합니다. 많은 참여바랍니다.

• 법정 스님 책읽기모임 '일기일회' 함께해요

매월 셋째 주 금요일 저녁 7시에 회원들이 함께 모여, 법정 스님의 저서 읽기 모임인 '일기일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법정 스님의 말씀과 지혜를 책에서 배우고 나누는 시간을 함께 할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후원 : 대구은행 002-05-016277-8 (사)맑고 향기롭게 대구지부



경남모임 (055-266-0170)

- **결연가정 후원** : 월 생활비 지원, 말반찬 및 김장김치 나누기 / 매월 둘째, 넷째 목요일 오후 4시/명절 및 가정의 달 세대 방문 성금 및 생필품 전달
- **장학금 후원** : 결연세대 청소년 장학금 지원
- **외부 시설 봉사활동**
-보현행원 : 무료노인요양원으로 매월 셋째 수요일 말벗 및 빨래 노력봉사 / 오전 9시 30분 사무국 출발
-사파복지회관 : 무료급식소(자비 공양의 집), 매월 넷째 주 화요일과 매주 토요일에 점심준비 및 설거지, 배식 봉사 / 오전 10시~오후 2시
-해 뜨는 교실 : 봉림 청소년 문화의 집, 저소득층 공부방으로 매월 첫째 목요일 오후 5시 학습지도 및 간식 지원/초등·중등 40명 지원
- **천연화장품 만들기 모임** : 매월 첫째, 둘째 금요일 진행/오후 1:30분/사무국
- **친환경 수세미 나누기** : 매월 둘째 화요일 모임 및 친환경 수세미 판매
- **위안부 할머니 지원활동** : 지역 내 홀로 생활하시는 위안부 할머니 찾아뵙기 및 지원활동
- **선 수련 모임** : 매주 금요일 저녁 7시 / 열린법당 '마하연'
- **회원 만남의 날** : 매월 넷째 수요일 오전 11시 / 사무국
- **정기 후원자 및 자원 활동가 수시 모집**

후원 : 농협 932-01-002933

(사)맑고 향기롭게 경남지부

광주모임 (062-236-3129)

- **점심공양나눔** :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고령, 저소득, 독거어르신을 대상으로 천원의 밥상(점심)운영/오전9시30분~오후2시/봉사자 및 후원자 모집 (김치 담그기 / 매주 토요일 공양 나눔 센터)
- **자비의 도시락 나눔 활동** :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독거노인,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세대를 위한 도시락 나눔
- **광주모임에서는 동구 신수동에 지역 회원들의 의친목과 불자들의 소통, 나눔의 공간으로 맑고향기로운 가계 무소유 찻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회원님의 많은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 **독서모임** : 법정 스님의 저서를 매월 선정하여 읽고 회원들과 함께 교류/매월 둘째 수요일/사무국
- **노래모임** : 건전가요, 명곡 노래 교실
- **장학사업** : 가정환경이 어려운 고등학생을 선발하여 3년간 학비 전액 지원
- **장터 및 바자회 운영** : 회원 및 이웃 대상으로 생필품 교환 기증 헌 옷 판매, 농산물 직거래, 친환경제품 판매
- **쓰레기 줍기 캠페인** : 연중 회원 및 봉사자들과 주변환경 및 시설 주변 쓰레기 줍기 캠페인 전개
- **천연화장품 만들기** : 매주 월요일 오후 2시 / 천연세숫비누, 빨래비누, 천연 화장품
- **정기 후원자 및 자원활동가 수시 모집**

후원 : 농협 355-0018-7812-13

(사)맑고 향기롭게 광주지부

시민모임 맑고 향기롭게 후원 안내

'길이 열리는 만큼 물이 흐르듯 본 모임의 사업은
100% 회원님의 후원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마음을 세상을 자연을 맑고 향기롭게 가꾸는 사업에 뜻을 함께해주세요.

정기후원 / 편리한 CMS 자동이체 신청하기

정기 후원 회원 가입	맑고 향기롭게 홈페이지 접속 가입서 작성 맑고 향기롭게 사무국 방문 가입서 작성 www.clean94.or.kr
온라인 후원	
중앙모임 (02-741-4696)	일반사업 후원계좌 국민 817-01-0253-129 KEB하나 201-890400-87705 농협 029-01-199412 결식이웃 후원계좌 국민 817-01-0255-458 아름다운 마무리 후원계좌 신한 100-013-787953 장학금 후원계좌 KEB하나 220-890015-10204
대구모임 (053-753-8883)	대구 002-05-016277-8
광주모임 (062-236-3129)	농협 355-0018-7812-13
경남모임 (055-266-0170)	농협 932-01-002933

* 후원하신 금액은 연말정산시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의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은행에서 직접 자동이체를 신청하신 경우에는 (사)맑고 향기롭게 지부 사무국으로 전화주셔서 회원등록 절차를 진행해주셔야 연말정산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해드릴 수 있습니다.

길상사 소식 Tel:(02)3672-5945 / Fax:(02)3672-5947

「부처님오신날」 봉축행사 안내(5월 12일)

- 관불의식 : 오전 9시 / 극락전 앞마당
- 봉축 법요식 : 오전 9시 50분 / 극락전
- 길상 음악회 : 오후 7시 / 길상사 프락

삼천배 철야정진

- 일시 : 5월 18일(토) 오후 8시
~ 5월 19일(일) 새벽 3시 50분
- 장소 : 극락전

불기 2563(2019)년 부처님오신날 봉축 제 등행렬

- 일시 : 5월 4일(토)
- 장소 : 동대문역 10번 출구 6시까지 집합
-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미리 5월 4일 전에 중무소로 오셔서 조끼를 수령하시고, 당일 6시까지 '동대문역 10번 출구' 앞에 모이시면 됩니다. 제등행렬 후 조끼를 반납하실 때 예쁜 길상사 손가방을 드립니다. (행렬등은 당일 현장에서 나누어 드립니다.)

이가온不二展 (눈길 손길 마음길 그곳에 부처)

- 일정 : 5월 4일(토) 오후 2시
~ 5월 12일(일) 오후 9시
- 장소 : 길상사 설법전

초하루기도 및 법회

- 일시 : 5월 5일(일) 오전 9시 50분
- 장소 : 극락전

백중 아미타기도 입재 및 하안거 결제

- 일시 : 5월 19일(일) 오전 9시 50분
- 장소 : 극락전

보름기도

- 일시 : 5월 19일(일) 오전 9시 50분
- 장소 : 극락전

지장재일

- 일시 : 5월 22일(수) 오전 9시 50분
- 장소 : 지장전

관음재일

- 일시 : 5월 28일(화) 오전 9시 50분
- 장소 : 극락전
- ※ 매달 관음재일에는 인등접수자 축원이 있습니다.

- ※ 5월 다리나기도는 제등행렬 관계로 4월 27일(토)에 봉행되었습니다. 일정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5월의 길상사 정기 법회·기도

기도명/법회	날짜	시간	장소
초하루 기도	5월 5일	오전 9시 50분	극락전
삼천배 철야정진	5월 18일	저녁 8시 ~ 새벽3시50분	극락전
부처님오신날 봉축법요식	5월 12일	오전 9시 50분	극락전
춘계관음기도 회향	5월 18일	오전 9시 50분	극락전
백중아미타기도 입재 및 하안거 결제	5월 19일	오전 9시 50분	극락전
보름기도	5월 19일	오전 9시 50분	극락전
지장재일	5월 22일	오전 9시 50분	지장전
관음재일	5월 28일	오전 9시 50분	극락전
극락전기도	매 일	새벽 4시/오전 9시 50분/저녁 7시	극락전
지장전기도	매 일	새벽 4시 40분/오전 9시 50분/저녁 7시	지장전
일요가족법회	매주 일요일	오전 11시	설법전
청년회법회	매주 일요일	오후 3시	세심당
중·고등법회	매주 일요일	오전 11시	세심당
어린이법회	매주 일요일	오전 11시	소강당
새신도 교육	매주 일요일	오후 1시	소강당

불기2563년(2019년) 부처님오신날 연등모연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맑고 향기롭게」근본도량 길상사에서는 연등공양을 접수 받습니다.

‘중생들을 모두 깨달음에 이루게 하겠노라’는 서원과 함께 속세로 오신 부처님처럼 나의 마음과 내 가족의 행복은 물론이요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 훼손되고 오염되어 죽어가는 모든 생명들을 위하여 연등 하나 환히 밝히시면 좋겠습니다.

자세한 문의와 접수는 길상사 종무소(02.3672-5945)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법당등(10만원)	도량 연등(3만원)
극락전 가족등	도량 가족등
지장전 영가등	도량 영가등

※올해부터 법당 영가등은 지장전에 모셔집니다.

이가온 不二展 - 눈길 손길 마음길 그곳에 부처 -

- 장소 : 길상사 설법전
- 일정 : 5월 4일(토) ~ 5월 12일(일)

『마음愛 자비를! 세상愛 평화를!』 기원하는 제20회 길상음악회

- 일시 : 5월 12일(일) 저녁 7시
- 장소 : 길상사 뜨락
- 출연 : 길상사 합창단, 박창근, 인디언쿠스쿠, 추가열

불기 2563년 부처님오신날

5월 12일(음력 4월 8일)

해마다 부처님오신날이 되면
등 달고, 음악회도 열고,
이렇게 모여서 이야기도 듣고 합니다.
이것을 단순한 행사로 여기지 마십시오.

언제나 새롭게 시작해야 합니다.
그날그날을 새날로 맞이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해마다 맞는 부처님오신날이지만
오늘 맞는 부처님오신날은 달라야 합니다.

- 法 頂 -

『맑고 향기롭게』근본도량 길상사에서는 오전 9시부터 아기 부처님을 씻겨드리는 관육의식을 시작으로, 오전 11시 봉축 법회를 극락전에서 봉행합니다. 또한 경내에서는 불교 문화 체험 및 친환경체험마당 등 다채로운 불교 문화행사가 진행됩니다.

저녁 7시부터 진행되는 길상음악회는 "부처님이 오신날의 의미를 되새기며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다양한 갈등을 부처님의 자비 정신으로 극복하고 한반도의 온전한 평화가 자리 잡기를 기원하는 의미로 "마음愛 자비를! 세상愛 평화를! 기원하는 길상음악회"로 진행됩니다.

오색 연등이 나무 사이에 걸려 5월 하늘이 더 아름다운 길상사에서 내 삶의 여유와 행복을 누리고, 우리 가정과 사회 그리고 이 땅에 생명과 평화의 소중함을 생각해보는 맑은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